

## 조선후기 여성속옷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염순정 · 김은정<sup>+</sup>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생활과학연구소<sup>+</sup>

### A Study on the Traditional Clothing Design by Applying the late *Joseon's* Women Underwear Style

Soon-Jeong Yeom · Eun Jung Kim<sup>+</sup>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2. 2. 27, 심사(수정)일: 2012. 5. 12, 게재확정일: 2012. 5. 20)

####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the late *Joseon's* variously developed characteristics of women's underwear and its formative elements, and ultimately aims to apply such characteristics to designing modern outfits. The main purpose of the presented work is to give guidelines on utilizing the fashion legacy in a various way, and inheriting the traditional concept of beauty by developing it into modern fashion designs. The designing and producing of the work is based on the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es, genre paintings, and traditional costumes in museums. Based on this research, the application of traditional underwear design to today's outfits involves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presented work features the formative outlines of traditional underwear as an inspiration for outer garments. Secondly, various traditional textiles are used such as ramie fabrics, damask silk, silk fabrics, fur, etc. for four seasons and they are turned to practical use for modern outfits. Third, colors of choice are white and low saturation colors to create an elegant and serene atmosphere. Finally, traditional sewing techniques are specifically applied to modern fashion designs. Included are: *Nubim* technique, *Gob-sol* technique, and the patching method. This work pursues the design of practical use by tying up clothes with straps and knots to prevent them from falling off.

Key words: form(형태), sewing techniques(바느질 기법), tradition(전통), underwear(속옷)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Corresponding author: Eun Jung Kim, e-mail: kimej0234@hanmail.net

## I. 서론

최근 패션유행 중 한 흐름을 보면 속옷을 겉에 입기도 하고 속옷의 조형적 요소를 모티브로 하여 겉옷으로 디자인하는 등의 속옷과 겉옷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의복의 착장방식이 다양하게 표현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패션흐름의 원류를 18세기말 우리나라 전통 복식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후기 풍속화에는 걸치마를 걷어 올려 속바지를 겉으로 드러나게 입은 모습이 나타나 있다. 저고리 길이가 너무 짧아 가슴이 노출되어 치마허리 위에 가리개를 하였으나, 오히려 가슴 가리개용 허리띠가 겉으로 드러나게 묘사되어 있다. 그 당시 풍속화 속의 여성들은 대부분 기녀들이나 이러한 복식의 착장방식은 일반 여성들의 생활 모습에서도 주로 나타나고 있어, 당시대의 유행하였던 복식의 착장방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의 여성복식은 상박하후(上薄下厚)의 형태, 즉 상체를 압박하고 하체를 과장되게 부풀리는 실루엣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아 속옷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의 전통한복은 전통을 유지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부담과 현대 패션의 새로운 경향을 수용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와 맞물려 있다. 이는 전통과 현대라는 균형,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해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적 디자인 개발에 있어 전통 복식의 조형미를 활용한다는 것은 전통복식을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한 활용을 의미한다. 즉 한국인의 감각 속에 녹아 있는 전통미의 원형(原形)에 대한 이미지와 조형미를 현대 패션 속에 융화시켜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통 속옷의 선행 연구로는 조효순<sup>1)</sup>, 김영희<sup>2)</sup>, 김혜진<sup>3)</sup>, 김혜경<sup>4)</sup>, 윤현진<sup>5)</sup>, 이순자<sup>6)</sup>, 황의숙<sup>7)</sup>, 이지혜<sup>8)</sup>의 연구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속옷의 역사, 속옷의 종류, 구성, 착장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박춘순<sup>9)</sup>, 김인숙<sup>10)</sup>은 바지 형태의 지역적 특성과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를, 김동옥<sup>11)</sup>, 안인실<sup>12)</sup>, 이경자<sup>13)</sup>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과 출토유물의 실측을 통한 복식 고증연구를 바탕으로 조

선후기의 속옷의 구성에 관한 많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전통 속옷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었으나 조선후기 다양했던 속옷의 조형요소를 현대 의상과 접목시켜 디자인한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후기에 다양하게 발달하였던 여성 속옷의 전통적 조형요소를 재해석하여 디자인 제작을 통해 전통 속옷의 조형요소와 모티브를 의상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고, 한국적 전통미를 나타낼 수 있는 의상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조선후기 복식에 관한 기록이 담긴 문헌과 여성 속옷에 관한 선행 연구의 고찰, 풍속화를 포함한 회화 자료 분석,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 답사를 통해 전통 속옷을 재해석하여 전통 의상디자인 및 실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수행 하였다. 조선후기 여성 속옷 중 가리개용 허리띠, 속적삼, 속저고리, 속바지, 살창고쟁이, 단속곳, 너른바지를 중심으로 모티브를 응용하였다. 또한 조선후기 여성 속옷에 대한 범주로 여성의 기본 복식인 저고리와 치마의 바로 밑에 입는 옷들을 통칭하여 속옷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조선후기 여성의 사회적 위치

조선후기는 유교적 도덕관념이 뿌리 깊게 내재된 사회로써 여성에게 유교적 여성관에 입각한 여성의 역할을 강요하였고, 부부유별(夫婦有別) 혹은 남녀유별의 내외법을 강조하였다.<sup>14)</sup> 이러한 내외법은 남녀간의 자유스러운 접촉을 금지하는 행동규제법이다. 예서(禮書)인 『경제육전』에 의하면, 양반 부녀는 부모·친형제·자매·삼촌·고모·친외삼촌·이모를 제외하고는 외부 사람과 직접 대면할 수 없었다.<sup>15)</sup> 내외법은 남자는 밖, 여성은 안이라는 엄격한 남녀구별이 강조 되었다. 이러한 남녀구별 의식은 여성들이 외출할 때는 장옷이나 쓰개를 착용하게 했고, 가마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선후기의 사

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성리학자들은 유교적 가부장제도의 가족 질서와 가문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가족 구성원의 유교적 규범을 내면화하여 유교적 여성관을 정립시키기 위해 여훈서(女訓書)<sup>16)</sup>를 편찬하였다. 즉 유교적 여성관이란 유교적 사회 체제를 정립하고 발전시키는데 합당한 여성의 자세와 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남성을 지배(支配), 강건(強建), 존귀(尊貴)로 규정하고 이해하는데 반해, 여성을 복종(僕從), 유순(柔順), 비천(卑賤)의 대칭형으로 규정하고 이해하였다.<sup>17)</sup>

이러한 유교적 여성관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여훈서로 내훈(內訓, 昭憲王后 : 1437~1504), 규중요람(閩中要覽, 李滉 : 1501~1570), 우암 선생의 계녀서(尤庵先生 戒女書, 宋時烈 : 1607~1689), 사소절(士小節, 李德懋 : 1741~1793)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여훈서의 내용<sup>18)</sup>은 유교 사회가 규정지은 여성들의 성품, 행동, 교양 등의 수신교육을 위주로 하였다. 즉 음양원리에 입각한 여성의 성 역할과 그에 따른 여필종부(女必從夫)의 관습과 삼종지도(三從之道), 칠거지악(七去之惡), 내외법(內外法) 등의 행동규범을 교육하였다. 이러한 여훈서는 여성의 선과 악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유교가 제시한 여성상, 여성으로서의 부도(婦道)를 강조하였다.<sup>19)</sup> 이처럼 유교적 여성관에 입각한 여성의 행동규범은 여성들 스스로 '정절과 순종'이라는 유교이념의 내면화를 촉진시켰고 조선 후기 전체적인 사회구조 속으로 확산되어 양반부녀 뿐만 아니라 일반 부녀에게도 생활화, 정착화 되어 일상생활과 복식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2. 조선후기 여성의 속옷의 형태와 종류

### 1) 속옷의 개념

속옷에 관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속옷은 겉옷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속에 받쳐 입는 옷'<sup>20)</sup>, '겉옷 속에 입는 내의(內衣), 내복(內服), 단의(單衣), 설복(褻服), 친의(襯衣)<sup>21)</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선후기 속옷은 기후와 한복의 구성상 여러 겹을 껴입어야 하는 복식구조면에서 겉옷과 속옷이

서로 대응하는 말로 겉옷은 외의(外衣) 또는 표의(表衣), 속옷은 내의(內衣), 내복(內服), 단의(單衣), 설복(褻服), 친의(襯衣)라 한다.<sup>22)</sup>

조선시대 내의에 관한 기록으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태종 9년 3월조에 "...우리나라 여자 의복 가운데 존귀한 것은 오군<sup>23)</sup>과 입모입니다..."<sup>24)</sup>의 기록이 있고, 태종12년 6월조에 "...지금부터 궁녀와 상기(上妓)이외에 서인(庶人)의 부녀와 종비(從婢)·천례(賤隸)의 옷은 ...라사(羅紗)·단자(段子)와 입모(笠帽)·말군(襪裙)을 허용하지 말고..."<sup>25)</sup>의 기록이 있다. 세조대에는 영집도감사 조숙생(趙肅生)의 처가 반가의 부녀 몸으로 말군을 입지 않고 말을 타고 외출하다가 우계번(禹繼蕃)이 기생인줄 알고 무례를 하게 되었다는 기록에서 반가 부녀자들이 보편적으로 말군(襪裙)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여기서 말군(襪裙)은 내의(內衣)로써 착용되었으나 걸바지라도 착용되기도 하였다.<sup>27)</sup> 1800년대 『의복발기(衣服發起)』에는 속곳, 바지, 단속곳 등 근래에도 사용되는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sup>28)</sup>

### 2) 조선후기 여성 속옷의 형태와 종류

상의(上衣)는 가리개용 허리띠, 속적삼, 속저고리가 있는데, 가리개용 허리띠(그림 1)<sup>29)</sup>일반적으로 의례용(儀禮用) 대대와 일할 때와 외출할 때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치마 위에 매는 허리띠와 저고리와 치마 사이의 맨살을 가리기 위한 가리개용 허리띠가 있다.

속옷으로써 가리개용 허리띠는 옷을 입기 전 맨살에 겨드랑이 밑으로 바짝 치켜 올려 가슴을 납작하게 줄라매어 살이 보이지 않게 착용하였다. 가리개용 허리띠의 소재는 여름에는 홀로 만들어졌고 봄·가을에는 겹으로 만들었다. 겨울에는 솜을 두거나 누비기도 하여 방한도 겸하였다.<sup>30)</sup> 속적삼(그림 2)<sup>31)</sup>은 저고리와 같으나 동정 없이 홀로 제작하며, 속적삼의 길이는 속저고리보다 짧고, 여밈은 고름 대신 손으로 맺은 단추를 달아 입었다. 상류 계급에서는 단추 대신 패물 또는 칠보·은보단추를 이용하기도 하였다.<sup>32)</sup> 속적삼은 맨살 바로 위에 입었으며, 봄·가을에는 면, 명주 등을 소재로 사용하였고, 여름에는 모



〈그림 1〉 가리개옹 허리띠  
- 조선여인의 속 입성거리, p. 24.



〈그림 2〉 속적삼  
- 우리옷과 장신구, p. 242.



〈그림 3〉 속저고리  
- 환생, p. 57.

시, 옥양목 등을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아무리 삼복더위라도 적삼 한 겹만을 입는 법은 없었으며 반드시 속적삼을 받쳐 입었다.<sup>33)</sup> 〈그림 3〉<sup>34)</sup> 속저고리는 저고리 안에 끼입는 속옷이다. 일반적으로 속적삼·속저고리·저고리를 착용했는데 이를 삼작 저고리라고 한다. 삼복더위를 제외하고는 겹저고리 안에 반드시 속저고리를 끼입었다고 한다. 형태는 일반 겹저고리와 같으며, 길이가 저고리보다 조금 짧고, 고름의 길이도 짧고 속적삼 위에 입었다. 소재는 주로 명주를 사용했으며 추울 때는 얇게 솜을 두어 만들었고, 주로 분홍색을 사용하였다.<sup>35)</sup>

조선후기 여성 속옷의 하의(下衣)로는 다리속곳, 속속곳, 속바지, 단속곳, 너른바지, 무지기 치마, 대습치마 등이 있다. 〈그림 4〉<sup>36)</sup> 다리속곳은 내곤(內禪)이라고 하며, 하의 속옷으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속옷이다. 다리속곳은 조선시대에 가장 속에 입었던 속옷으로 형태는 홀으로 된 2편(片)의 천을 꿰매어 허리에서 묶을 수 있도록 허리띠가 달려 있다. 다리속곳은 허리말기를 가슴까지 올려 입어서 가랑이 밑에 여유가 생겨 몸에 달라붙지 않아 통풍이 잘 되었고, 가랑이 밑에 여유가 많아서 일일이 허리끈을 풀지 않고도 용변을 볼 수 있었으며 소재는 계절에 관계없이 흰 목면으로 만들었으며 피부에 직접 닿는 천으로, 자주 빨아 입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요즈음의 속 팬티 역할을 했다.<sup>37)</sup>

〈그림 5〉<sup>38)</sup> 속속곳은 단속곳과 거의 같은 형태이나 치수가 단속곳 보다 약간 작고, 바대와 밑 길이가 길게 되어 있다. 속속곳은 다리속곳 위에 입었다. 속속곳은 단속곳 보다 직접 살에 닿는 부분이 많아서 소재를 옥양목, 무명, 광목 등으로 하였으며 명주처럼 부드러운 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여름철에는 베, 굵은 모시, 광목, 안동포 등을 사용하였다. 〈그림 6〉<sup>39)</sup>

속바지는 허리부분의 통이 넓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바지통이 좁아져 자연스럽게 속바지의 아래 부분이 여머지도록 되어 있다. 속바지는 속속곳 위에 입는 속옷으로, 착용했을 때 속속곳을 완전히 가려주어야 했으므로 속속곳 보다는 크기가 더 컸다. 또한 허리말기의 끈은 속속곳과 반대인 방향에 달려있어 끈을 매었을 때 끈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속바지는 남자의 바지와는 다르게 밑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밑을 따로 떨어지게 한 것은 용변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였다.<sup>40)</sup> 소재는 봄·가을에는 무명, 명주 사용하여 겹으로 만들었다. 겨울에는 솜을 두어 두툼하게 누비기도 했고 누비는 형태에 따라서 다리부분은 좁게 누비고, 허리 부분은 넓게 누빈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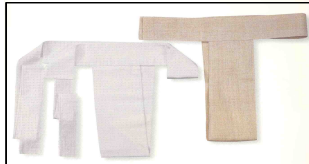
〈그림 7〉<sup>41)</sup> 살창고쟁이는 모시 4폭을 한쪽 가랑이로 만든 통이 넓은 속바지인데 양쪽 끝을 허리말기에 달고 가운데 주름 부분을 올려내어 이 부분은 손으로 곱게 말아 감쳐 만들었으며 속바지 위에 입었고, 소재는 모시나 삼베로 만들었다. 또한 살창고쟁이는 속바지에 구멍을 내어 착용했을 때 통풍이 잘 되고 시원하여 더위를 견디기 위한 하절용 바지로, 외출하지 않는 노인들이 집안에서 한 여름에는 살창고쟁이 하나만을 입기도 하였다.<sup>42)</sup>

단속곳의 형태는 양 가랑이가 넓고 밑이 막혀있다. 길이는 바지보다는 길고 치마보다 약간 짧다. 일반적으로 홀으로 되어있으며, 간혹 겹으로 된 것도 유물에서 볼 수 있다. 형태는 여러 폭을 이어서 만든 넓은 가랑이에 사다리꼴, 또는 사각형의 밑을 달고 바지 쪽에 주름을 잡아 말기를 연결하고 트임을 옆으로 따로 내어 끈을 달았다.<sup>43)</sup> 〈그림 8〉<sup>44)</sup>의 단속곳처럼 어깨에 끈이 있는 경우도 있고 겹으로 된 것도 있다. 단속곳은 속바지 위에 입었으며 서민 부녀자들은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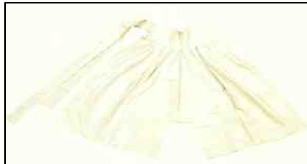
속곳을 치마 바로 밑에 입는 속옷으로 서민들 사이에서 단속곳을 '겉속곳'으로 부르기도 했다. 단속곳의 소재로는 여름에는 모시, 아사, 향라 등을 주로 사용했고, 겨울에는 명주, 자미사 등을 사용하였다.

〈그림 9〉<sup>45)</sup>너른바지의 형태는 단속곳과 바지를 겹쳐 놓은 것 같은 가랑이가 넓은 바지인데, 보통 겹으로 되어있으며 앞은 막히고 뒤는 터져있다. 또한 밑은 따로 달지 않고 터지지 않도록 약 2cm길이의 정네모꼴을 마름모꼴이 되도록 반으로 접어달아서 튼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너른바지는 주로 상류층에서 정장을 할 때 착용했던 밑받침 옷이었으며 하체를 풍성하게 보이도록 단속곳 위에 입었다. 서민들은 너른바지를 입지 못했으며 오늘날에도 옛 풍습을 찾는 가정에서는 혼수에 너른바지를 넣어주기도 한다고 한다.<sup>46)</sup> 〈그림 10〉<sup>47)</sup> 무지기 치마는 상류계층에서

정장을 할 때 치마 밑에 입는 속치마의 일종이다. 무지기 치마에 대하여 『청장관전서』 사소절에 “근일 부인들이 담색(淡色)치마를 즐겨 입는 까닭에 얼마쯤 상부(孀婦)의 복의(福衣)같아 매우 이상하고 또 먼저 짧은 흰 치마를 걸치므로 다리 없는 오합(五合)치마, 칠합(七合)치마라는 이름으로 불린다.”<sup>48)</sup>라고 하였다. 무지기 치마의 형태는 모시 12폭으로써 3층, 혹은 5층, 7층으로 길이가 다른 여러 겹의 천을 층층으로 차이를 두어, 한 허리 말기에 단 것으로 걸치마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현대의 '페티코트(Petticoat)'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무지기 치마는 너른바지 위에 입었다. 소재는 모시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무지기 치마 각 단에는 각색으로 얇게 물들여 흡사 '무지개'와 같았다고 한다. 그래서 무지기 치마, 무지기라고 명명되었고, 이것을 한자로 “無足”



〈그림 4〉 다리속곳  
- 조선여인의 속 입성거리, p. 67.



〈그림 5〉 속속곳  
- 우리옷과 장신구, p. 281.



〈그림 6〉 속바지  
- 우리옷과 장신구, p. 275.



〈그림 7〉 살창고쟁이  
- 우리옷과 장신구, p. 279.



〈그림 8〉 단속곳  
- 조선여인의 속 입성거리, p. 27.



〈그림 9〉 너른바지  
- 조선여인의 속 입성거리, p. 15.



〈그림 10〉 무지기치마  
-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p. 153.



〈그림 11〉 대솥치마  
-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p. 155.

이라 하였다.

〈그림 11〉<sup>49)</sup>대습치마는 특히 귀족계층에서 사용하던 속치마의 일종으로 정장을 할 때 착용했다. 대습치마는 무지기 치마 위에 입었으며 소재는 모시 12폭으로 하였는데 12폭은 끌리지 않을 정도의 길이의 폭이었다. 대습치마 단에는 창호지 백비를 달았는데, 백비의 너비는 4cm정도이고 길이는 치마폭의 길이의 창호지로 만들어 모시로 싸서 붙였다. 이러한 백비는 걸치마의 아래를 퍼지게 하여 치마의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서양속옷의 '후프(hoop)'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sup>50)</sup>

### Ⅲ. 조선후기 여성의 속옷문화와 속옷의 걸옷화 현상

#### 1. 조선후기 여성의 속옷문화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살을 절대로 타인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당시의 관습”<sup>51)</sup>때문에 신체를 은폐하기 위해 여성복의 내의가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그 당시 여성들은 유교적인 가치관에 따라 신체를 은폐하기 위해 속옷을 제대로 차려 입으면 치마를 입은 모습이 마치 종을 엮어 놓은 듯한 상박하후(上薄下厚)의 실루엣을 표출하였다.<sup>52)</sup> 내의가 실용적이며 위

생적인 용도 외에 신체를 철저히 은폐하려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현상은 여성을 사회로부터 유리시키려 했던 조선시대 사회의 유교사상에 근거한 여성의 정숙함과도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숙성에 대해 이덕무는 “유순하고 정숙함은 부녀자의 복”<sup>53)</sup>이라 하여 여성의 부도(婦道)로서 정숙을 당시대의 중요한 가치덕목으로 지적했다. 이처럼 내의가 여성복에서 더 다양함을 보이는 것은 여성들에게 폐쇄된 생활을 강요했던 사회상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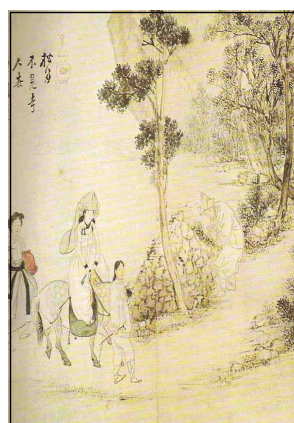
조선 후기 여성들의 모습을 그 당시의 풍속화에 살펴보면 풍속화에 나타난 여성들은 짧은 저고리 아래 가리개용 허리띠로 가슴을 밀착 시켰고 과장되게 부풀린 치마의 대비는 여성 신체의 곡선미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윤복의 미인도〈그림 12〉<sup>54)</sup>나 거문고 줄 고르기〈그림 13〉<sup>55)</sup>에 나타난 여성들의 가리개용 허리띠는 신체를 은폐하기 위해 착용했지만 허리선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 있다. 이는 하체를 더욱 풍만하게 보이도록 유도하여 선정적으로 여성 신체의 곡선미를 나타낸 미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복식의 착장방식은 풍속화에 나타난 여성들이 대부분 기녀들이나 문종심사(聞鐘尋寺)〈그림 14〉<sup>56)</sup>, 노상탁발(笠上托鉢)〈그림 15〉, 어물장수(魚物 장수)〈그림 16〉<sup>57)</sup>, 김홍도〈그림 17〉<sup>58)</sup>의 우물가의 풍속화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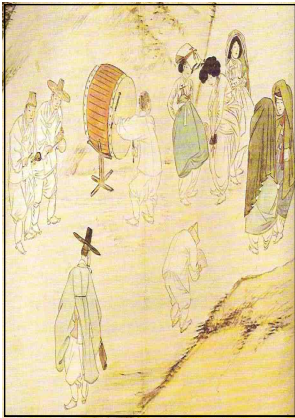
〈그림 12〉 미인도  
- 한국의 미, p. 204.



〈그림 13〉 거문고 줄 고르기  
- 한국의 미, p. 207.



〈그림 14〉 문종심사  
- 조선사람들, 해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 p. 218.



〈그림 15〉 노상탁발  
- 조선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걸어나오다, p. 238.



〈그림 16〉 어물장수  
- 의식주, 살아 있는 조선의  
풍경, p. 69.



〈그림 17〉 우물가  
- 한국의 미,  
p. 111.

양반 여성, 일반 여성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어 그 당시의 유행이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윗저고리의 밀착된 도련선 때문에 풍성한 치마가 주는 외적인 분위기는 여성의 하체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둔부의 앞뒤 볼륨이 보다 완벽하게 고정되게 보이려면 치마 밑에 속옷을 얼마나 잘 갖추어 입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여성들은 은폐의 목적과 둔부를 부풀리기 위해 여러 종류의 속옷과 긴 치마를 입었는데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간소화하기 위해 치마꼬리를 치켜 올려 앞으로 끌어당겨 허리끈으로 고정하여 하체를 풍성하게 부풀려 둔부의 풍성함을 최대한 강조한 미적 특성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슴에 밀착 시킨 짧은 저고리와 부풀린 치마 즉 상박하후의 복식미를 추구하였던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자연스레 속옷이 노출되는 복식의 착장방식으로 인해 여성 신체의 곡선미를 강조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겹옷만큼이나 속옷에 신경을 써 비단 조각으로 덧단을 대는 등 속옷이 노출되는 부분을 아름답게 장식한 미적 특성을 엿볼 수 있다.

## 2. 조선후기 여성 속옷의 겹옷화 현상

속옷은 대중 사회에서 개인의 은밀함과 충만감을

유지시켜주는 신체와 가장 가까운 특별한 것인 동시에 인체와 의복 사이에 필요한 내부 공간을 제공해주는 상반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정숙성과 성적 매력이라는 양면성을 가졌으며, 겹옷이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속옷은 보는 사람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아주 개인적이며,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여겼다. 이처럼 속옷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것인데 속옷을 치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를 보여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속옷은 땀을 흡수하고 보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피부나 육체에 직접 착용하는 의류의 총칭으로 신체와 의복 사이에서 요구되는 매체로 인식되어 왔으며, 타인의 눈에 드러나지 않게 속에 입는 옷으로 자리매김 하던 옷이 시대의 변화를 거치면서 겹옷으로 나타나게 되었다.<sup>60)</sup> 이처럼 속옷이 겹옷으로 드러나게 되는 현상은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겹저고리의 단소화(短小化)와 더불어 속저고리가 외복화(外服化)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영·정조 시대 이래로 우리의 주체적인 사고가 출현하면서 복식에도 한국적 고유성이 강조되었고, 내의(內衣)가 외의(外衣)화 됨으로써 인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인체에 밀착된 의복도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표의(表衣)나 내의(內衣)는 그 시대의 풍속에 따라 직접, 간접적인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미의식을 반영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으며 내의도 개인의 미적욕구와 사회적 윤리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sup>61)</sup>

조선시대 여성들이 상의(上衣)인 저고리를 착용할 때, 대개 「삼작 저고리」라는 것을 입었다. 삼복더위에도 한 겹만을 입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으로 보았다.<sup>62)</sup> 박규수에 따르면 내의(內衣)로 입은 속저고리나 속적삼은 옷 저고리 보다 조금씩 작게 입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이런 제도에 근본적으로 혼란을 가져와 사대부가의 부녀자의 경우 겉옷이 없어지고 속에만 입던 오랑캐의 복식 모양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박규수가 오랑캐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옷이다. 겉옷이 없어지고 속옷이 임진란 이후에 겉으로 드러나 가릴 것이 없게 되면서 옛 중국의 제도가 오랑캐의 제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때의 속옷은 길이가 몹시 짧고 통이 아주 좁은 것이었다.<sup>63)</sup> 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박규수의 주장은 임진왜란 이후의 의복 간소화(簡素化)의 풍조화에 따라 안팎이 훤히 비치는 얇은 천을 겹으로 하여 곱술로 박아 지은 후 여름용 겉저고리로 대용하여 착용하면서 “깨끼적삼”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박제가의 『북학의(北學議)』에도 “적삼은 날이 갈수록 짧아지고 치마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지만 하는데 이런 모양으로 제사 때나 빈객을 대접할 때 행사를 하니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여 겉저고리 뿐 아니라 속에 입는 적삼까지 작아지고 있으며, 치마 입은 모습도 벌어진 것을 지적하고 있다.<sup>64)</sup>

이익(李穡, 1681~1763)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부인의 의복이 소매는 좁고 옷자락은 짧은 것이 요사한 귀신에게 입히는 것처럼 되었다. 나는 이런 옷을 비록 좋게 여기지 않으나 대동(大同)으로 되어 가는 풍속에는 어쩔 수 없겠다”<sup>65)</sup>고 한 기록에서 그 당시 짧은 저고리 아래 속옷이 드러난 복식이 항상 사대부들 간에 문제가 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그 당시 사대부 학자들이 부녀자의 짧은 저고리와 좁은 소매에 대하여 예의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모두 그 당시 복식의 풍속 변화를 살필 수 있다. 조선후기의 여성복식은 근원적으로 정신적인 가치변화에 따라 복식미에 대한 관념이 달라

지면서 여성의 신체미를 드러낼 수 있는 인체의 노출 및 강조로 나타나게 되었고, 체형을 의식하는 복식의 간소함은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속옷의 겉옷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66)</sup> 즉, 속바지의 노출은 은밀한 내의(內衣)를 드러냄으로써 여성의 선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적인 연출로 볼 수 있으며 여성들의 정신적인 가치변화에 따라 복식미에 대한 관념이 달라지면서 여성들의 속옷 노출이 유행하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Ⅲ. 속옷을 응용한 작품 제작

#### 1. 속옷을 응용한 작품 제작 의도

현대 패션의 흐름을 보면 속옷을 겉에 입기도 하고 속옷의 조형요소를 모티브로 하여 겉옷으로 디자인하는 등의 속옷과 겉옷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의복의 착용방식이 다양하게 표현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전통속옷의 모티브를 현대 의상디자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전통속옷의 특성을 살려 전통미를 나타내면서 실용성을 더해 디자인하고자 한다. 의상에 도입한 형태는 가리개용 허리띠, 속적삼, 속저고리, 속바지, 살창고쟁이, 단속곳, 너른바지의 전체 윤곽선, 형태적 특성, 전통 소재 등으로 재구성을 거쳐 디자인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속옷을 선택한 이유는 형태적인 면에서 가리개용 허리띠는 탑의 조형적 요소를, 속적삼과 속저고리는 블레로와 가디건의 조형적 요소 갖추고 있어 현대적 의상 디자인과 접목시킬 수 있는 모티브로 활용 할 수 있음이다. 속바지는 하의 속옷 중 가량이 배래의 아름다운 곡선 실루엣과 살창고쟁이는 펼쳤을 때 거의 치마와 흡사한 실루엣과 통풍을 위해 도려낸 구멍을 현대적인 주머니로 응용할 수 있는 좋은 모티브이다. 단속곳과 너른바지의 넓은 바지통은 랩 스커트의 실루엣을 나타낼 수 있는 모티브로 활용 할 수 있음과 특히 단속곳에 덧대진 당을 활용한다면 하체를 조이지 않는 편안함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어깨끈이 있는 단속곳의 조형적 요소는



〈표 1〉 작품 계획 및 작품사진

작품번호	I	II	III	IV
구성	상의, 하의 치마	상의, 하의 바지	상의, 상의가 연결된 치마	상의가 연결된 바지
소재	모시	양단, 모본단	실크, 명주, 양단 명크 털	실크, 수직 실크
모티브	속적삼과 살창고쟁이의 윤곽 형태선 	가리개용 허리띠와 단속곳바지의 윤곽형태선 	속저고리와 가리개 허리띠의 윤곽형태선 	가리개용 허리띠와 속바지의 윤곽 형태선 
컨셉	속적삼과 살창고쟁이 속옷의 형태 선을 겹옷으로 디자인하여 여름철 모시의 질감과 살창고쟁이의 특성을 살려 시원한 이미지 연출함	가리개용 허리띠를 탑의 형태로 연출, 단속곳은 랩바지 형태로 연출함, 전통 단속곳의 겹치는 끈을 흘러내리지 않게 단추 구멍을 통과시켜 묶을 수 있게 하여 편리함과 실용성을 연출함	적삼의 형태를 응용하여 실크에 누빔 기법, 명크 털을 사용, 겨울철 전통 치마, 저고리를 차려 입은 고급스런 이미지 연출, 결혼식, 피로연 등의 예복으로 활용 수 있게 함	가리개용 허리띠, 속바지의 윤곽선 응용, 오방색 조각으로 이어 누빔, 색동의 화사한 이미지와 속바지의 주름을 현대적인 기계주름으로 표현하여 실용성과 우아함을 연출함
제작기법	곱술, 말아 박기, 연봉매듭	옆트임, 입술단추	누빔, 패치워크	누빔, 조각 잇기
계절	여름	봄·가을,	겨울	봄·가을, 색동, 연노랑
색상	쪽색, 하늘 색	분홍색, 진녹색	흰색, 검정색	
실루엣				
작품사진				

바지를 흘러내리지 않게 하면서도 탑 형태로 응용할 수 있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 이들을 선택하였다.

색상은 우리민족의 색이라 불리는 흰색과 속옷의 색으로 주로 쓰였던 분홍색, 그리고 미인도나 조선후기 여성들의 치마 색으로 나타난 쪽색, 녹색, 검정색 등 전체적으로 저채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차분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소재는 주로 전통 소재인 비단과 모시, 명주와 실크, 밉크 털 등으로 계절에 맞게 입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사용하였으며 특히 전통 소재인 모시와 양단을 활용하여 현대적 의상과 어울릴 수 있는 의상 디자인을 하였다. 세부적인 제작 기법은 실크 속에 솜을 넣고, 명주로 안감을 대서 가리개용 허리띠와 누빔 속바지에 사용하였던 누빔 기법과 얇은 소재에 사용하는 전통 곱술 기법 그리고 조각 잇기 기법을 활용하였다. 트임 부분의 마감 처리는 단속곳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덧담 방식을 사용하였고, 전통복식에서 여밈 방식인 끈과 매듭 등으로 여밈 처리를 하였다. 작품 계획표를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 2. 작품 제작 및 해설

<작품 I>은 소매가 없는 상의와 하의 치마로 구성되었다. 상의는 속적삼의 형태적인 윤곽선과 깃, 매듭을 응용하여 디자인 하였고, 짧은 소매로 여름철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의는 살창고쟁이의 형태적인 윤곽선을 응용해 바지의 형태가 아닌 치마로 디자인 하였으며 속바지의 끈을 활용해 허리선에서 고름처럼 묶도록 하여 전통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바람이 잘 통하도록 주름 부분을 올려내어 구멍을 내었던 부분을 주머니 형태로 응용하였으며 조선후기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속옷이 노출되었던 이미지를 살려, 안에 치마를 겹쳐 입는 방식을 통하여 창구멍사이로 치마가 노출되도록 연출하였다. 또한 색상은 시원하고 전통적인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천연 쪽색으로 하였고, 안에 받쳐 입는 치마는 전통복식에 자주 사용되었던 수를 놓아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다. 바느질기법은 속적삼과 살창고쟁이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곱술박기로 하였고, 소재는 여름철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도록 모시로 제작하여 일

상의 외출복으로 하였다.

<작품 II>는 상의는 가리개용 허리띠의 형태적인 윤곽선을 탑의 형태로 응용하였다. 또한 속적삼의 매듭단추를 활용하여 장식 효과를 나타냈다. 하의는 단속곳의 윤곽 형태 선을 응용하였고, 단속곳의 당을 응용하여 하체를 조이지 않도록 편안함을 모색했다. 단속곳의 여밈 방식인 끈을 활용하여 허리선을 강조하였다. 전통 단속곳의 허리말기 끈은 서로 엇갈리게 교차하여 묶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끈이 고정되지 않아 옷이 흘러내리게 되고 교차하는 부분이 매끄럽지 않다. 본 작품에서는 전통 끈의 이미지를 살리면서도 교차하는 부분이 엇갈리지 않고 매끄럽게 보일 수 있도록 허리말기에 구멍을 내어 입술 단추 구멍으로 마감하여 실용성을 보완 하였다.

전통 한복의 여자 치마를 착용할 때, 거드랑 밑에서 치마끈을 둘러매어 입게 되는데 치마의 속자락은 오른쪽 거드랑이 밑으로 걸자락은 왼쪽 거드랑이 밑으로 서로 엇갈려 둘러 입게 된다. 이때 속자락의 끈은 치마말기 위로 나와 가슴위로 두르게 되는데 흘러내리지 않도록 끈을 조여 입는다. 이렇게 착용하는 전통 한복의 치마 착용법은 가슴을 조이게 되고, 치마의 길이가 어긋나며, 교차되는 부분이 겹쳐서 외관상 매끄럽지 않은 불편함이 있다. 이에 안자락 쪽에 단추 구멍처럼 구멍을 내어 입술단추구멍으로 마감 처리를 하여 끈이 구멍을 통과하게 한다면, 겹치지 않고, 가슴을 조이지 않아도 흘러내리지 않게 되어 전통 한복 치마를 착용하는데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소재는 상의는 단조로운 꽃무늬의 분홍색 양단을 사용했고, 하의는 구김이 가지 않도록 금사가 들어있는 양단을 사용하였고, 양단의 결이 너무 매끄럽고 단 색일 경우 얼룩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데 금사가 섞여있어 복합적인 질은 녹색으로 다른 양단에 비해 부피감을 줄 수 있는 양단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작품 II는 봄·가을에 다른 옷과도 어울려 입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작품 III>은 안에 입는 옷은 가리개용 허리띠와 너른바지의 윤곽 형태 선을 응용하였다. 조각 잇기 방법으로 가리개 허리띠의 윤곽선을 응용하여 허리를 가늘어 보이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가리개의 허리

끈을 응용하여 하의 부분에 끈을 달아 저고리 고름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게 하였고, 고리를 달아 노리개나 장신구를 매달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짧은 상의 사이로 보일 수 있는 가슴부분에 목단 무늬의 자수를 놓았고, 하의부분에 달린 끈에도 목단 무늬의 자수를 놓아 전통미를 강조하였다. 상의는 속적삼의 형태적 윤곽선과 누빔 기법을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소재는 실크에 솜을 넣고 명주 안감을 대고 누웠으며 하의부분은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색상은 흰색과 검정을 사용하여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강조하여 명절이나 피로연 등의 예복으로 입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작품 IV〉는 가리개의 윤곽 형태 선을 가져와 조각을 이어 붙여 안에 솜을 두고 굵게 누빔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탑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어깨 끈을 응용하여 목에 걸도록 디자인하였으며 안에 단추를 달아서 입고 벗기에 편리하도록 디자인하였다. 하의부분은 속바지에 사용되었던 주름 부분을 기계주름으로 잡아 속바지의 형태적인 윤곽선을 부각시켰다. 또한 전통복식 바지의 대님을 부착하여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색상은 오방색에 가까운 노랑 초록 분홍의 색동으로 상의 부분을 강조하였고, 하의부분은 속바지에 사용되었던 삼베의 색감을 나타내는 이중 색을 사용하였다. 봄·가을에 다른 옷과도 어울려 입을 수 있도록 소재는 구김이 가지 않는 수직 실크로 하였다.

#### IV. 결론

조선시대에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여성들에게 정숙성을 강조하였던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를 은폐시키려는 의도로 속옷이 발달하였으나 조선후기에는 어느 시대보다 노출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조선후기는 상박하후(上薄下厚)의 형태, 즉 상체를 압박하고 하체를 과장되게 부풀리는 실루엣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아 속옷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신윤복, 김홍도 등의 풍속화에 표현된 조선후기 여성복의 특징은 저고리의 길이는 겨드랑이가 보일정도로 짧고, 배래는 곡선이 거의 없는 직

선형이며 도련 밑으로는 흰색 치마 허리띠를 조여매어 허리의 날씬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치마는 풍성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대부분 허리띠로 치마꼬리를 치켜 올려 매어 하체를 더욱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는 전형적인 상박하후의 형태의 실루엣이다. 이러한 치마의 착장방식은 자연스럽게 속옷을 노출시켰으며, 은폐의 목적으로 겹겹이 끼입었던 속옷을 은밀하게 드러냄으로써 여성 신체의 아름다움을 선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조선후기 여성 속옷의 전통적인 조형 요소를 새롭게 재해석하여 전통미를 나타낼 수 있는 의상을 실물 제작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의상에 도입한 형태는 주로 전통속옷의 형태적인 윤곽선을 응용하여 실물을 제작하였는데 조선후기 속옷의 조형요소를 겉옷의 의상디자인 모티브로 응용하여도 무리가 없었다.

둘째, 소재는 전통 소재인 양단과 모시, 명주, 털 등으로 계절에 맞게 입을 수 있도록 사용하였으며, 전통소재를 현대적 의상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색상은 우리민족의 색이라 불리는 흰색과 속옷의 색으로 주로 쓰였던 분홍색, 그리고 미인도나 조선후기 여성들의 치마 색으로 주로 나타난 쪽색 등 전체적으로 저채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차분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다.

넷째, 세부적인 제작 기법은 가리개 허리띠와 속바지에 사용되었던 누빔 기법과 얇은 소재에 사용하였던 곱술 기법 그리고 조각 잇기 기법을 활용 하였다. 전통복식에서는 여밈 방식으로 매듭과 끈을 주로 사용하였다. 치마와 속바지의 여밈 부분에서 끈이 서로 엇갈려 교차됨으로써 걸자락이 흘러내려 이를 막기 위해 가슴을 과도하게 조이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여 교차되는 부분에 입술 단추 구멍을 내어 끈이 구멍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교차되는 부분이 매끄럽고 흘러내리지 않게 하여 실용성을 모색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복식의 조형적인 요소와 전통 소재의 활용 등

전통 복식미의 재발견과 이를 모티브로 다양한 의상 디자인의 활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조효순 (1988), *한국복식 풍속사 연구*, 서울: 일지사, pp. 226-230.
- 2) 김영희 (1998), *전통 내의 문화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 3) 김혜진 (1988), *한국여성 친의류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
- 4) 김혜경 (2005), *조선후기 살창고쟁이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 5) 윤현진 (2001), *조선후기 여자속옷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
- 6) 이순자 (1999), *여성 속옷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
- 7) 황의숙 (2003), *속옷 착용에 따른 전통복식의 실루엣에 관한 연구*, *뿌리논총*, 22, pp. 233-250.
- 8) 이지혜 (2007), *한국 근대 여성 전통 속옷의 변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 9) 박춘순 (1991), *바지형태의 지역적 특성과 변천 과정에 관하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
- 10) 김인숙 (1987), *바지考*, *대한가정학회지*, 25(2), pp. 25-30.
- 11) 김동욱 (1978), *출토 조선시대 유의와 복식사적 연구*, *복식*, 2, pp. 9-20.
- 12) 안인실 (2001), *조선시대 바지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 13) 이경자 (1991), *개성복식의 연구*, *복식*, 17, pp. 45-56.
- 14) 자료검색일 2008. 8. 11, [http://preview.nnica.co.kr/bo1/topic.asp?article\\_id=b03](http://preview.nnica.co.kr/bo1/topic.asp?article_id=b03)
- 15) 한미라, 전경숙 (2004), *한국인의 생활사*, 서울: 일지사, p. 138.
- 16) 강연순 (2006), *조선후기 사대부 여훈서에 나타난 여성상 형성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8(1), p. 3.
- 17) 박용옥 (1991), *한국 여성 연구 1*, 서울: 청하, pp. 8-13.
- 18) *조선후기 여훈서의 내용은 대체로 사부모(事父母), 사구고(事舅姑), 사부(事夫), 화형제(和兄弟), 목친척(睦親戚), 교자녀(教子女),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 어노비(御奴婢), 음식의복(飲食衣服), 절검(節儉), 근면(勤勉), 적선(積善), 불투기(不妬忌), 수신(修身), 신언어(慎言語)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연순, *op. cit.*, p. 40.
- 19) *Ibid.*, p. 39.
- 20) 국어국문학회 (1996), *민중판 밀레니엄 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p. 543.
- 2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1991),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829.
- 22) 김영숙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p. 248.
- 23) 오군이란 양반층의 여자들이 치마 밑에 입던 바지를 일컫는다.
- 24) 손경자, 김영숙 (1982), *한국복식사 자료선집, 조선편 I (조선왕조실록)*, 서울: 교문사, p. 71.
- 25) *Ibid.*, p. 80.
- 26) *Ibid.*, p. 357.
- 27) 박성실 (1984), *한국사 25*,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p. 320.
- 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古文書集成 十二- 藏西閣篇 III*,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82.
- 29)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2007), *조선여인의 속 입성거리*, 서울: 단국대학교, p. 243.
- 30) 유희경 (2002),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 500.
- 31) 이경자, 홍나영, 장숙환 (2004), *우리옷과 장신구*, 서울: 열화당, p. 242.
- 32) 윤현진, *op. cit.*, p. 31.
- 33) 유희경, *op. cit.*, p. 496.
- 34) 단국대학교 석주선 박물관 (2006), *환생*, 서울: 역사박물관, p. 57.
- 35) 유희경, *op. cit.*, p. 495.
- 36)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op. cit.*, p. 67.
- 37) 유희경, *op. cit.*, p. 498.
- 38) 이경자, 홍나영, 장숙환, *op. cit.*, p. 281.
- 39) *Ibid.*, p. 275.
- 40) 조효순, *op. cit.*, pp. 226-231.
- 41) 이경자, 홍나영, 장숙환, *op. cit.*, p. 279.
- 42) 조희진 (2003), *선비와 피어싱*, 서울: 동아시아, pp. 36-37.
- 43) 안인실, *op. cit.*, pp. 22-23.
- 44)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op. cit.*, p. 27.
- 45) *Ibid.*, p. 15.
- 46) 유희경, *op. cit.*, p. 499.
- 47) 박성실, 조효숙, 이은주 (2005),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p. 153.
- 48) 李能和 (1927), *朝鮮女俗考, 第十八章, 朝鮮女子服裝制度*, 서울: 동문선, p. 317.
- 49) 박성실, 조효숙, 이은주, *op. cit.*, p. 155.
- 50) 유희경, *op. cit.*, p. 486.
- 51) *Ibid.*, p. 499.
- 52) 조효순, *op. cit.*, p. 222.
- 53) 李德懋 (1985), *韓國傳統禮節 士小節*, 서울: 명문당, p. 198.
- 54) 오주석 (2006), *한국의 미*, 서울: 숲, p. 204.
- 55) *Ibid.*, p. 207.
- 56) 강명관 (2007), *조선사람들 해원의 그림 밖으로 나오다*, 서울: 푸른역사, p. 218.
- 57) *Ibid.*, p. 238.
- 58) 중앙일보, (1985), *한국의 미, 19*, 서울: 중앙일보사, p. 111.
- 59) 오주석, *op. cit.*, p. 111.
- 60) Richard Martin and Harold Koda (1993), *Infra Apparel*, NY: Metropolitan Museum of Art, pp. 64-66.
- 61) 금기숙 (2005), *조선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pp. 26-27.

- 62)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 (1950), *한국여성사 II*,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p. 51.
- 63) 조효순 (1981), *조선후기 여성복식과 개량논의, 복식*, 4, pp. 6-7.
- 64) 조효순 (1988), *op. cit.*, pp. 140-141.
- 65) 손경자, 김영숙, *op. cit.*, p. 338.
- 66) 윤희성 (1999),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치마·저고리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12.